

MUJINE

Heritage

10

OCTOBER 2014

*ON THE
RED CARPET*

RETURN OF LIPSTICK

UNVEIL THE CITY

NINE BEAUTY
ESSENTIALS


77개의 물건과 나





양혜규, <소리 나는 보름달 - 중량 중형 #2 (Sonic Full Moon - Medium Regular #2)>, 2014

달아, 달아

매일이 한가위만 같아라, 칭송받는 그날에 슈퍼문이 떴다는데 달을 보지 못했고, 소원도 빌지 못했다. 부디, 기어이, 아무쪼록 들어달라는 말들이 사부작사부작 잊혀지는 날들에 그런 건 분에 넘치는 일이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미디어시티서울이 올해 8회를 맞았다. 어떤 장면을 마주쳐도 좋겠지만 양혜규의 작품은 특히 스쳐 지나치지 말자. 서울시립미술관 1층, 나선형 바닥 테이핑의 중앙을 차지하고 매달린 건 <소리 나는 보름달 - 중량 중형 #2>이다. 금빛 도금한 방울들이 바람 따라 살랑댄다. 움직이는 조각인데 회전하면서 움직이기도 한다. 바람이 불어 움직이고 움직이니까 소리가 난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움직일 리 없다. 박찬경 전시 감독은 양혜규 작품의 선정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소리 나는 보름달>, <소리 나는 춤>, 그리고 <바람이 도는 궤도>가 함께 만들어내는 앙상블 내에서 지상의 모든 춤이 그러하듯이, 어떤 ‘우주적 질서’는 흔들려 털려 나가거나 새로운 상태에 대한 상상과 열망으로 불어난다. 진동과 흔들림은 새로운 질서를 향한 간절한 주문이기도 하다.” 주문을 외워볼 것. 커다란 달이 흔들리기를.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년 11월 23까지,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  EDITOR 김만나